

입시KIN(즐) 페스티벌 '내 친구를 돌려줘!'주간 행사

〈대입 논술, 약인가 독인가〉

● 일 시 : 2006년 11월 14일(화) 17:00

● 장 소 :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정동)

2006! 입시즐(KIN) 페스티벌 준비위원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 교육공동체 나다 /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준)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청소년다함께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 학벌없는사회 / 학벌없는사회 학생모임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입시KIN(즐) 페스티벌 '내 친구를 돌려줘!'주간 행사

〈대입 논술, 약인가 독인가〉

■ 일 시 : 2006년 11월 14일(화) 17:00

■ 장 소 :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정동)

2006! 입시즐(KIN) 페스티벌 준비위원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 교육공동체 나다 /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준)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청소년다함께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 학벌없는사회 / 학벌없는사회 학생모임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행사 개요

■ 개요

- 일 시 : 2006년 11월 14일(화) 17:00
- 장 소 :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정동)
- 주 최 : 입시KIN(즐) 페스티벌 준비위원회

■ 발표

사회 권혜진(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발제

대입 논술, 의미 있는 선발기제인가

--- 주경복(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입 논술이 공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 이형빈(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입시팀)

논술, 사교육 그리고 교육 양극화

--- 박이선(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권을 말하는 논술, 인권이 없는 학교

--- 강나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안을 위한 모색

--- 심광현(문화연대)

청중토론

2006! 입시즐(KIN)페스티벌

글 실는 순서

- ☞ 대입 논술, 의미 있는 선발기제인가 1
---- 주경복(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 대입 논술이 공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15
---- 이형빈(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입시팀)
- ☞ 논술, 사교육 그리고 교육 양극화 40
---- 박이선(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 논술아 가면을 벗어라 45
---- 강나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 대안을 위한 모색 48
---- 심광현(문화연대)

2006! 입시즐(KIN)페스티벌

대입 논술, 의미 있는 선발 기제인가 ?

주 경 복 (민교협, 건국대 교수)

머리말

‘논술’이란 ‘어떤 것에 관한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물’을 일컫는다. 그것이 함축하는 내용을 음미해 보면, 사람이 생각하며 자신의 의견을 구성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일련의 과정이 논술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논술은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진 소양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그와 관련한 학습을 중시하며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급기야 대학의 입학생 선발 수단으로 도입되면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논술은 어떻게 교육하고 활용해야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일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논술은 어떤 위치를 점하는 것인가? 그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물음들이 던지는 함의를 염두에 두면서 논술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대학에서 입학생 선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논술고사’에 초점을 맞추며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 대학에서는 논술을 단순히 입학지원자의 능력 판별을 위한 여러 가지 독립된 수단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논술 고사’는 초·중등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고등학교 내신 제도나 수학능력시험의 기능까지 연동하여 좌우한다는 점에서 복잡한 ‘기제’를 구성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사교육의 부조리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과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논술을 너무

단순한 관점에서 인식하며 대입 선발 제도에 도입하고 그 비중을 자꾸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은 진지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논술’이라는 현안 문제는 이제 종합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논술의 본질 자체를 벗어나 부차적 기능에 집착하거나 한국의 조건에서 야기하는 특수한 현상들만을 단면적으로 인식하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면 가운데 한 쪽만 강조하여 찬·반의 흑백 논리로 비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진솔하게 성찰하며 교육의 진보를 위한 생산적 논의 구도로 나아가야 한다. 논술의 긍정적 측면을 불합리한 조건에서 엉뚱한 곳에 끌어 대어 써먹겠다고 고집해서도 안 되겠고, 그것이 잘못 쓰이려 한다고 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며 폐기해 버리는 것도 너무 소극적인 자세이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제도는 철회하여 원점으로 돌리고 논술이 지니는 본래의 교육적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길을 합리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1. ‘논술’의 교육적 의미

‘논술’을 외형만 얼핏 보면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표현해 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에 이르기 위한 사유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논술은 이 세상의 사물과 현상과 일들을 잘 관찰하고 분석하며 깊이 생각하여 얻은 견해를 조리 있게 정리하여 표현하는 입체적 과정의 결정체다. 그런 모든 과정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의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 관찰력, 이해력, 분석력, 판단력 등이 포함되는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체험과 독서와 성찰이 필요하고, 말하기, 글쓰기, 마주하기 등이 포함되는 표현력 또는 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토론, 발표, 글작성 등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반영하고 그에 어울리는 교수법을 적용해야 한다. 자신의 체험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제시해주는 정답을 암기하는 방식의 학습을 탈피하여 스스로 사물을 관찰하고 삶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성찰하며 자신의 판단을 통해 견해와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는 학습활동을 교과과정에 편성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관람, 답사, 관찰, 조사, 실험, 사색, 상상 등의 학습활동을 대부분의 교과목

에 도입하고 수업과정에서 토론, 발표, 기록, 일기, 감상문, 독후감, 보고서 등의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초·중등 교과과정과 교수법이 대폭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등 과정에서는 철학이나 문학 등의 교과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기존의 수업방식을 많이 바꾸어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이다. 맹목적 또는 기계적으로 흐르기 쉬운 암기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동기부여와 목적의식이 있는 주체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¹⁾ 깊이 있고 폭넓은 인격을 형성하며 창조적 능력을 키우게 한다. 무엇보다도 부조리와 모순이 혼재하는 삶속에서 사물과 현상을 굴절 없이 바라보려는 비판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식 속에 끼어드는 불순물과 이데올로기의 때를 벗겨내고 주체적인 지성인이 되어 자신 속에 잠재하는 능력을 창조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점에서 논술은 그 자체로서 긍정적 가치가 매우 높고 교육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특히, 한국의 초·중등 교육이 너무 암기 위주로 흘렀다는 반성의 각도에서 볼 때 논술은 하나의 대안적 가치까지 부가하며 상당한 의미와 매력을 지닐 수 있다. ‘생각’, ‘성찰’, ‘논리’, ‘서술’, ‘사고력’, ‘창의력’, ‘표현력’ 등의 말만 떠올리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듯이 논술도 그 본질의 기능과 용도와 조건에 맞추어 써야 가치가 있다. 낫이 풀을 베고 자를 때 유익한 도구라 하여 부엌에서 요리하는 일에만 써 먹으려 한다면 부조리하고 위험한 일인 것처럼 논술도 그것의 유용성을 왜곡하여 아무데나 아무렇게 써먹는다면 곤란하다. 현재 한국에서 논술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그것의 본래 기능을 벗어나 잘못 이용하려는 데서 생기는 일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에서 논술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 것일까? 간단히 요약하여 말하자면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논술이 교육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유하는 과정과 표현하는 과정이 교육 과정 속에서 입체적·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그 모든 교육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로서의 표현물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표현해 내는지가 관심의 전부처럼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부조리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표현은 내용을 드러내 주는 것일 뿐 내용 자체는 아니다. 사유의 내

1) 타의적으로 주입되어 시한적으로 소멸하는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하여 자아의 삶과 함께 지속하는 ‘산 지식’을 갖추게 한다.

용이 없는 표현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성찰이 없는 언어는 그 표현이 아무리 번듯해도 창조적 힘을 갖지 못한다.

논술 교육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표현의 기술을 다루는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많이 관찰하고 분석하고 경험하고 판단하며 성찰하는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생략된 채 억지로 무엇인가를 표현해 내는 기술만 익힌다면 그것은 오히려 표리부동과 위선과 억지만을 강요하여 논술활동에 대한 염증과 혐오와 불신을 낳고 비교육적 결과에 이르고 만다.

2. 대입 '논술고사'의 명분과 실상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과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대학들 스스로 내세우는 명분은 앞에서 살펴 본 바의 논술이 갖는 긍정적 의미에 토대를 두고 있다.²⁾ 그것은 각 대학의 논술고사 운영형식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대학의 '논술고사'를 살펴보면, 그것의 출제나 채점에서 염두에 두는 평가 기준은 대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도 범주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³⁾

- 이해력 : 지문과 출제의도의 이해
- 창의력 : 독창성
- 논증력 : 논리성
- 표현력 : 문장 작성법과 수사적 기술

이렇게 다양하고 중요한 영역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외형상으로는 '논술고사'가 상당한 통합성과 심도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바람직한 논술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들을 대부분 담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상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 외형적으로 제시된 목적 범주들의 대부분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 범주인 '표현'의 결과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 표현의 기교를 통해 다른 부분들이 오히려 위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2) 정부의 교육당국도 그런 명분에서 대입 논술고사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다만 '본고사'의 기능만 억제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3) 대학에 따라 그 조합과 용어를 다소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크게 비슷한 형식을 갖는다.

불합리하게 왜곡되는 양상까지 보인다. 그 실상을 하나 씩 점검해 보기로 하자.

우선 이해력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많은 경우에 대입 논술고사는 고전 문헌이나 교양 문헌 또는 시사적인 글의 일부를 떼어낸 단문, 발췌문, 요약문 등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그것의 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형식의 글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⁴⁾ 이 때 주어지는 짧은 시간에 주어진 분량의 지문을 읽고 그 내용과 문제의 취지를 파악하는 것도 이해력을 반영하는 것이고, 일정하게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갖는 의미는 매우 제한적이고 빈약하다. 오히려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이해능력을 측정했다고 말하는 평가 결과가 원래의 목표와 어긋날 수 있다. 현행 논술고사의 지문들은 분량, 주제, 형식 등에서 모두 일정하게 유형화된 것들이어서 원래의 글이 담고 있는 내용과의 소통, 즉 성찰을 통한 이해가 아니라 외형적 이해에 그칠 수 있다. 특히, 그 원문이 깊은 사유나 상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일수록 원문 전체를 읽은 학생이 오히려 시험에서 불리한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다. 시간과 분량 때문에 가급적 단선적이고 요약적인 이해를 선호하는 시험의 생리와 깊은 성찰과 복잡한 현실의 이해를 요구하는 원문의 독서가 자주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진리가 대부분 단편적이지 않듯이 깊이 있는 글의 흐름은 많은 함의와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다. 명분은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독서의 동기를 주며 그런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겠다는데 오히려 그런 목적에 충실한 학생이 불리하거나 적어도 유리하지 못한 반면에 요령만을 구사하여 가볍고 표피적인 '요약문 독서'에 돈과 시간을 바친 학생들이 더 유리한 성적을 얻는다면 원래의 명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평가 방법이 오히려 교육이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술고사'는 교육 기능과 평가 기능에 모두 배치하기 쉽다.

창의력의 부분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인위적으로 규격화된 자료체를 놓고 발휘될 수 있는 창의성 또는 독창성이란 표현상으로 드러나는 기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풍부한 창의력을 지닌 학생이 오히려 짧은 시간 짧은 글에 그 내용을 담기가 더 어려울 수 있고, 설령 잘 요약하여 담아내더라도 표현상의 제약에 가려서 그 진가를 평가 받기 힘들다. 지문이 들어 있던 원문의 풍부한 내용

4)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에서는 지문을 주지 않고 "특정 문화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진실보다 행복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가?", "시간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것은 합당한 일인가?" 등의 열린 주제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것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 바칼로레아의 문제는 각 학생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관점을 총동원 시킨다.

과의 깊이 교감을 통한 창조적 성찰도 아니고 평소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창조성도 인위적으로 쪼개어 맞춘 구도 속에서는 창의력으로 발휘되기는 힘들다. 오히려 그런 자생적 창조성은 출제 의도를 벗어나는 '과잉' 또는 '일탈'로 읽히기 쉽다. 반면에 도식적 구도에 맞추어 준비된 예화나 명언들이 채점자의 심리적 시선을 더 끌며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원래의 명분에서 많이 멀어지는 결과이다.

논리력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인다. 이미 지문의 제시에서 도식화해 버린 내용 안에서의 논증이기 때문에 논리적 구성이라는 것이 인격적 사유의 폭과 체계를 측정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지문이 들어 있던 원문의 풍부한 사유거리들은 일부러라도 배제해 버리고 도식적으로 대비되거나 유사한 내용의 단편을 놓고 흑백논리, 양비론, 양시론 가운데 하나쯤을 선택하여 논점과 흐름을 잡은 뒤에 '삼단논법', '기승전결', '비유법' 등의 적절한 기교를 부려야 하는 것이다. 논술에서 가치 있는 '논리'나 '논증'이란 주장할 입장이 있어서 그것을 설득력 있게 펼치기 위해 발휘될 때 생명력을 갖는다. 그런 것이라야 삶의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 능력이다. 자신의 신념이 논리를 뒷받침할 때 힘이 있고 진정한 논리가 된다. 단지, 기교 상으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인과적 오류',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무지예의 호소' 등 논리학 용어를 암기하여 나열하며 논증의 형식을 꾸미는 것은 표현 상의 논리성을 다소 보일지 모르지만 내용상의 논리를 결여한다. 흔히 채점자들은 표현적 기교와 논리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많다.

표현력이라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논술고사'가 거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영역일 수도 있지만 그나마 크게 신뢰할 수는 없다. 개인적 삶이나 학습상의 훈련에서 내화된 인격적 표현이 아니라 별도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써먹는 표현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내면적으로 우러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외부에서 일시 빌려 쓰고 곧 버리는 표현들이 넘쳐나는 현상을 쉽게 목격한다. 대입 수험생들의 글에는 개인의 향기가 사라지고 학원이나 과외의 냄새가 짙게 밴 사자성어, 속담, 시사용어 등이 매우 어색하게 끼어들고 범람한다. 학원 등에서 배운 '경쟁력', '구조조정', '노블레스 오블리쥬', '넘비 현상', '폴레랑스', '딩크족', '보이지 않는 손', '블루 오션', '세계화', '신지식', '양극화', '웰빙', '정보화' 등등의 어휘가 정상 이상의 빈도를 보이며 어울리지 않게 자주 섞여든다. 지문이나 제목과 상관없이 미리 준비한 예문의 삽입은 표현력의 왜곡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위인들의 에피소드나 대중적 충격을 일으켰던 사건 등이 단골로 등장한다.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런 용어나 예화들의 삽입이 문맥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러나 우연히 문맥이 맞아 떨어져서 채점자의 호의를 얻는 경우도 많다. 결국, 평가에는 진정한 논술의 교육적 의미가 반영되지 않고 우연, 인위, 오류 등이 작용하기 쉽다. 채점자들은 기계적인 채점 기준에 얽매이게 된다. 형평성과 성적 편차 등을 고려해 세워진 몇 가지 기준들에 따라 기계적으로 점수를 매기다 보면 글의 본래 기능은 잊고 점수 변별의 기능에 흡입되어 버린다. 그렇게 하여 얻는 점수에서 논술의 진정한 교육적 의미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모든 결과는 논술이 전제하는 교육의 전 과정이 생략된 채 시험이라는 인위적 조건에서 표현물만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실시하며 내세우는 명분의 대부분이 허상임을 보여준다. 물론 일정하게 명분과 부합하는 성과도 없지는 않다. 앞에서 살펴 본 사항들은 일반론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예외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고사'의 교육적 명분이 그 예찬론자들의 주장만큼 튼튼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이런 현실에서도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전말이 뒤바뀐 논술을 바로 잡을 곳은 초·중등 교육의 현장들인데 현실적으로는 모든 교육이 입시에 종속되는 모순 때문에 거꾸로 고등학교 교사들이 왜곡된 논술고사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논술'이라는 전공은 원래부터 없는 것이고, 철학이나 문학 등의 과목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과목들에서 각각 자신의 수업 내용과 방식을 통해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며 전체 교육과정을 통해 절합(articulation)해 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논술이라는 결정체이다. 그런데 논술을 마치 하나의 독립된 과목이나 수업방식처럼 파편화하여 교육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교육 체계 안에서는 원천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⁵⁾⁶⁾ 어떤 식으로든 편법을 쓰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은 결국 교육 자체의 왜곡을 부른다.

그렇다면 논술고사가 목적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고등교육의 '수월성'이나 '발전'을 위한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초·중등 교육의 왜곡을 일으키면서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의 물음이 생기겠지만, 그 이전에 과연 그런 효과는 실제로 있는 것인 지의 물음을 먼저 던지게 된다.

5) '통합(교과)논술'이라는 개념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통합적 교육 내용과 실천이 없는 통합적 논술은 그만큼 더 허구화될 수밖에 없다.

6) 고등학교 교사의 70% 이상이 논술지도에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언론의 통계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3. 고등교육과 '논술'의 관계

정상적인 의미의 '논술'은 대학 교육에 큰 도움이 되고 매우 중요한 것이다. 대학이야 말로 논술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술의 본질과 본래 기능에서 상당히 벗어난 '대입 논술고사'라는 기제를 통해 얻는 교육적 효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보여주는데, 질적으로 따진다면 고등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많다고 말할 수 있다.⁷⁾

긍정적인 측면부터 이야기 하자면, 논술이 '대입논술고사'의 기제 속에서 이루어졌든 아니면 다른 기제 속에서 이루어졌든 논술을 훈련한 학생들은 과제를 부여할 때 일정한 정도의 글을 어렵지 않게 써 낸다는 점이다. 최소한의 글쓰기 능력을 보편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또한 논술고사의 지문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고전이나 시사적 글에 대한 독서 경험을 다소 축적하고 있어서 교양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긍정적인 점을 더 많이 열거 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은 그보다 훨씬 많아 보인다.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예시해 보기로 하자.

우선 사고의 경직성을 불러 고등교육에 필요한 '고등'의 사고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논술고사'를 오랫동안 준비하여 그에 상당히 길들여진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분량이 많은 책이나 긴 글을 읽기 힘들어 하고 그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입체적으로 소화하여 정리하기를 힘들어 한다. 짧은 책이나 글에 대한 적응력은 꽤 높은 편이지만 깊고 무게 있는 독서에는 매우 약하다.

마찬가지로 글을 길게 쓰는데 매우 취약하다. 짧은 글은 매우 순발력 있게 써 내는 편이지만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길게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일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편이다. 그래서 분량이 많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대부분 남의 글들을 인터넷 등에서 빌려다가 짜깁기하여 편집하는 형식을 많이 취한다. 그런 습관과 학습활동은 결국 독창성의 계발을 저해한다. 이는 고등교육에서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전문성과 창의력의 배양에 큰 한계로 작용한다.

7) 입시제도나 교육체계 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차치하고 교육의 내용에서만 보더라도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 그런 점에서 현행 '논술고사'는 비교육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과제를 접근하는 자세에 진정성이 결여된다는 점이다. 다분히 사적인 동기가 부여된 주제가 아닌 경우에는 과제 자체에 몰입하기를 힘들어 하고 사고하며 표현하는 것에 성의가 없다. 그런 속에서 억지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진술해 지지 못하는 경향을 갖는다. 글이 너무 가볍고 기교에 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유의 방식마저도 성찰의 깊이가 부족하고 단편적이며 그나마 자신의 것보다 남에게서 빌려다 쓰기를 더 선호한다.

이런 현상들은 물론 상당 부분 디지털 문화의 패러다임 자체에서 비롯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같은 시대의 문명적 패러다임 속에서도 유독 한국 대학생들에게서 그런 양상이 더 두드러지는 이유는 왜곡된 논술의 영향에서도 그 일부를 찾을 수 있다. 깊이 있게 성찰하고 창조적으로 글 쓰는 일에 대해 즐거움을 상실하고, 오히려 염증, 피로감, 두려움을 느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살펴볼 때, '논술고사'가 적어도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극제의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형식적인 논술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대학교육 과정에서 논술 능력이 조금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대학 교육 자체가 갖는 성찰적 성격 때문에 언제든지 학생들 각자가 새롭게 동기를 부여 받으면서 자생적인 논술 능력을 쌓아 갈 수 있을 텐데 어쭙지 않은 대입논술고사용 논술 훈련에 길들여져서 그런 창조적 훈련의 기회를 오히려 저해 받게 된다. 그렇다면 '논술고사'를 왜 많은 대학에서 고집하며 강행하려 하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반추해 보지 않을 수 없다.

4. 대입 학생 선발 수단으로서 '논술고사'의 기능

현재 한국의 대입 논술고사와 논술교육은 논술이 지니는 본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 왜곡과 일탈의 길을 걷고 있다. 다른 나라의 논술 교육과 평가에서는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게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심하게 부각되면서 매우 '한국적인' 부조리들을 낳고 있다.⁸⁾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듯이 한국의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는 '논술고사'는 겉으

8) '논술'의 전통을 생각하면 합리주의 뿌리가 강한 유럽대륙 국가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독일의 '아비투어'를 놓고 보면 한국의 논술은 '아비투어' 방식에 조금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토대는 전혀 다르다.

로 내세우는 명분처럼 논술의 교육적 사명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것이 갖는 교육적 의미는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모두에서 매우 미미한 반면에 비교육적 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논술고사'의 실체는 무엇인가? 대학들은 교육적 명분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논술고사를 강행하고 있을까? 그 해답은 교육이나 공공의 명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뜻밖의 존재이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대입논술고사'의 존재이유는 학생선발에서 변별성 획득을 위한 안전장치의 다변화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적해 보인다. 다시 말해서 내신, 수능, 면접, 특기 등 기존하는 변별 수단들에 보태어 한 가지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더 조밀한 장치를 갖춘다는 의미이다. 결국 대입 논술고사는 학생선발의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조금이라도 우수한 학생을 적게 놓치고 많이 선발하려는 목적이다.

거창하게 국가사회 전체의 진보나 교육적 정의를 논하지 않고 개별학교의 차원에서만 이야기한다면 논술고사는 나름대로 이유 있는 '애교적(愛校的)' 충정의 발로일 것이다. 치열한 경쟁관계에서 다른 학교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학생을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노력의 정당성이나 도덕성 등 다른 모든 측면에 관한 논의를 쫓겨두고 오로지 우수한 입학생을 조금이라도 많이 뽑기 위한 수단이라는 면에서만 놓고 볼 때, 그런 목적에서는 과연 '논술고사'가 유효한 수단일까? 이에 답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인식하고 느끼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입학생 선발의 결과를 '우수한 학생'이라는 기준에서 과학적으로 엄밀히 측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수한' 학생이라는 기준에 대한 관점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학생의 실력을 잠재력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현행 대입논술고사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목표에 비해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성격상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잠재력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의 사회적 배경이나 수학 조건 등을 의미 있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수단이든 입학생 선발 절차에 많은 변수를 추가할수록 가정환경과 사회적 배경이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해져서 논술고사의 평가에도 일정하게 반영될 것이다.⁹⁾ 다른 입시 수단들도 비슷하지만 특히 현

행 논술고사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특수한 형태의 학습을 유도하고 있어서 사교육의 손에 많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대입 논술고사는 개별 대학의 '애교적' 또는 '이기적' 기준에서 보더라도 간단히 유·불리를 판단하기 힘든 변수가 되는 셈이다. 잠재력이 많은 학생을 뽑아서 그 자질을 계발함으로써 많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싶은 생각과 수학을 위한 개인적 배경이 좋은 학생을 많이 확보하여 학교의 이미지를 높이고 싶은 생각이 모두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만 판단하면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안하는 대학들의 비율이 반반으로 분포하거나 일정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상식이겠으나 현실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추가되기 때문인 것 같다.

많은 대학 당국들은 논술고사를 일종의 심리적 '보험'처럼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술고사를 통해 확실하게 우수한 학생을 확보한다기보다 학생 선발 수단을 여러 가지 확보하여 안전한 장치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입시 수단들 가운데 어느 한 곳에 빈틈이 생겨도 다른 수단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다. 마치 홍수 때 수위 조절을 위해 댐을 많이 세우면 심리적으로 안심되는 것과 비슷하다. 내신, 수능, 면접 등의 다른 수단에서 결함이 생겨도 논술고사라는 하나의 수단을 추가해 놓으면 선발 장치가 더 조밀해 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5.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행 대입 논술고사 제도는 논술의 본래 기능을 왜곡하며 교육적 또는 사회적 문제들을 심각하게 많이 야기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로 초·중등 교육을 왜곡시킨다. 논술이 내포하는 체험적 성찰과 인격적 표현의 학습을 벗어나 오로지 표현물을 조작해 내는 기술에 몰입함으로써 논술 교육 자체는 물론 공교육 전체를 왜곡시키고 그로부터 파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9) 실제로 가정환경과 사회적 배경이 좋은 학생들을 선호하는 대학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들을 야기한다.

둘째로 고등교육까지 부정적 후유증을 겪게 한다. 비정상적인 '논술' 교육에 시달린 결과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학생들의 삶에 잔존하면서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경직된 학습 관행을 대학생할에까지 연장되어 지성적 성찰과 창조적 학습을 저해한다.

셋째로 사교육 과열을 부추긴다.¹⁰⁾ 입체적 논술 능력의 계발을 위한 일상적·다변적·심층적 교육이 아닌 '논술고사 대비용' 교육은 그 성격상 학교 교육에서 정상적으로 내화하기 힘든 것이어서 학생과 학부모로 하여금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심리를 부추긴다.

넷째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 시킨다. 사교육이 개입할수록 이 문제는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탈적 논술고사 준비의 풍조는 비싼 사교육비 지출을 유발하여 소외 계층을 교육으로부터 더욱 소외 시킨다.

다섯째로 사고와 표현의 순수성을 파괴하여 인격적 왜곡을 초래한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진솔하게 표현함으로써 스스로와 상호간에 신뢰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데 왜곡된 논술교육과 대입논술고사는 그런 토대를 원천적으로 허물어 버리거나 비뚤어진 방향으로 유도한다.

여섯째로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창의력 계발의 기회를 빼앗아 오히려 그 잠재성을 파괴한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기의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하고 개성적 표현을 체득하여 창조적으로 성장 기회를 저해한다.

일곱째로 상상력과 표현력을 경직시키고 논술의 즐거움을 상실한다. 생각하고 말하거나 글 쓰는 일을 즐겁게 여길 때 그런 활동을 통한 생산적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논술은 오히려 그에 역행하는 기능을 한다.

10) '논술고사 확대' 발표 이후로 논술학원 수와 규모가 90%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던진다.

6.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대입 '논술고사'의 폐해를 없애고 진정한 의미의 논술 기능을 회복하여 교육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한다.

'대입 논술 고사'는 논술의 원래 기능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것이 확인되는 만큼 바로 폐지한다.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폐해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논술 교육의 길을 찾아야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진정한 의미의 논술이 전제하는 '기초' 교육을 단계에 따라 과학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암기 위주의 학습을 지양하고, 체험과 성찰과 표현을 중시하는 교육에 역량을 배치한다. 그에 필요한 학습과목과 내용과 수업방식을 합리적으로 도입한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부터 철학 과목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사유하는 교육의 틀과 내용(contents)을 구조적으로 확보한다. 넓은 의미의 '철학' 속에서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도 주입식이나 타율성을 벗어나 성찰적으로 내화시키고, 인접 영역인 논리학의 내용도 적절히 가미한다.

언어 영역 학습에서 단문 위주의 발췌문이나 인위적으로 단편화한 지문들의 사용을 자제하고 고전 작품이나 시사적 글들을 있는 그대로 독서하며 자유롭게 글 쓰는 '문학적' 학습의 비중을 늘린다.

대부분의 과목들 수업에서 발표, 토론, 글쓰기 학습의 성취도를 높인다. 말뿐인 토론 수업이 아니라 지식의 접근 절차 자체를 토론식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대폭 늘린다.

논술에 관련된 사항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주체적 학습 과정을 담당 교사들이 학생부에 자세히 서술하여 대학 입학 때 활용케 한다. 상대적인 점수화가 아니라 꾸준한 관찰의 내용을 기록한다.

대학은 전공별로 선발 기준을 달리하고, 인문사회 계열이나 예술 계열 등의 전공 성격에 따라 관찰력, 분석력, 판단력, 상상력, 표현력 등의 사항을 참고하게 한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대학교 또는 대학별이 아니라 전공별로 논술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도입·운영케 한다.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 논술 본고사를 중심으로 -

이형빈 (이화여고 교사, 전교조 입시연구팀)

1. 풍경 하나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열린우리당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 철회를 요구하기 이틀 전 EBS 권영만 사장을 만나 “논술 때문에 괴롭다”며 EBS의 도움을 요청했다.

정 총장은 “(서울대) 교수들과 교육부가 논술고사를 놓고 시각 차이가 커 고민”이라는 말로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도입 방침에 대해 교육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정 총장은 또 논술고사 채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EBS가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 총장은 “교수들의 논술 주관식 문제 채점에 객관성이 떨어진다” “(교수들이 매기는 점수가) 점심 식사 전·후에 다르다”는 등의 말로 논술고사 채점의 문제를 지적했다. 권 사장은 “EBS 논술연구소에서 논술고사 평가 기준을 만들 용의가 있다”는 말로 정 총장의 요청을 대신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한국일보, 2005년 7월 12일)

2. 풍경 둘

“나 역시 요즘의 서울대 논술시험을 통과할 자신이 없다. 명색이 50년 동안 글을 썼다는 나도 이런 방식의 글쓰기 시험엔 자신이 없다. 세상에 글쓰기의 전법이 어디에 있느냐. 글쓰기의 틀은 또 무엇이나. 백 사람이 글을 쓰면 백 개의 글이 다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시험 제도는 글쓰기를 감금상태에 몰아넣는 것이다.”

원로 문학평론가인 이어령 전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서울대 논술시험을 거론하

며 현행 글쓰기 교육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등단 50주년을 맞아 본지 인터뷰에서 "획일화한 글쓰기 교육이란 도도한 광풍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그는 "요즘 대학 논술시험 문제들이 너무 어렵다"며 현행 논술제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중앙일보, 10월 30일)

3. 풍경 셋

주입식 학원 강의, 논술 시험 망친다. 고3 대상 학원 논술강의-초반 논제 파악하기, 논술문 쓰기 개론 강의, 중반 인간과 자연, 개인과 사회, 대중문화 등 배경 지식 강의, 종반 실전 문제풀이. 논술학원은 "백미러와 지시등이 일직선이 되었을 때 브레이크 밟아라", "운전대와 장애물이 30cm 벌어지면 핸들을 두 바퀴 돌려라"라며 운전실력과 하등 상관없는 공식을 가르치는 자동차학원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창의적 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얼마 전 서울대 논술에서 <어린 왕자>에 나오는 왕자와 여우의 대화를 읽고 인간 소외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수험생의 70%가 학원에서 배운 걸 자랑이라도 하듯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인용, 교수들 아연실색.

논술 침삭 엉터리다! 강사가 하지 않는다. 편당 4천~5천원을 주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맡긴다. 논술 경향도 모르고 논술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대학생들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문장 구조 등만 지적. 학원은 학생들로부터 편당 1만~1만5천원씩 침삭료 받아 값싸게 외주를 주고 이윤만 챙기는 셈.

연 수강생이 3만 명에 이르는 수능 언어강사가 대한민국 논술 교육의 실상을 고발한 <논술 공부 99%는 잘못됐다>는 책에 나온 내용이다. 일부는 많이들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충격적이다 못해 절망적이다. 저자에 따르면 논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논술은 '교육부가 용인한 대형 사기극', 수능 시험만으로도 얼마든지 대학 입시를 치를 수 있음에도, 논술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또 하나의 거대 사교육 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겨레, 2006년 10월 29일)

4. 풍경 넷

2008학년도부터 논술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서울대의 입시 방침에 대해 학부모들은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교홍 의원이 지난 28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인텔리서치에 의뢰해 학부모 1천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2.5%P)에 따르면 서울대의 논술고사 비율확대에 대해 47.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찬성하지만 유보해야 한다'는 대답은 20.8%, '잘 모르겠다'는 8.3%였다.

논술고사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들을 소득수준별로 보면 500만원 이상 30%, 400만~500만원 26.6%, 300만~400만원 26.2%, 100만원이하 22.7%로, 소득이 높을수록 논술고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06년 10월 31일)

I. 건국 이래 최악의 입시안 - 죽음의 트라이앵글

대한민국 교육계가 논술 본고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교육부의 2008학년도 입시안.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요구하는 대학의 요구를 암묵적으로 수용하여 '내신-수능-본고사'의 삼중고(三重苦)를 학생들에게 부여하였다. 그리고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은 교육부의 입시안을 심분 활용하여 논술, 면접, 인적성고사 등 온갖 형태의 대학별 본고사의 비중을 높인 2008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2008학년도 입시안은 건국 이래 최악의 입시안이라 평가할 만하다.

자칭 '저주받은 89년생'이라 하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들은 그들이 입학할 당시부터 적용된 내신등급제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신 제도가 '수, 우, 미, 양, 가'와 같은 기준에 의해 평가받던 기존의 절대평가에서 '상위 4% 1등급, 상위 11% 2등급 ……' 하는 식의 상대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친구를 경쟁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비교육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내신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교육학적 원칙에서 매우 어긋난 것이다.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는 교육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성취수준에 비추어 해당 학생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였는가를 절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내신 평가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내신등급제는 오로지 전체 학생 중 그 학생

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의해 그 학생의 등급을 결정함으로써, 과도한 입시경쟁 체제를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 결과 친구의 노트를 훔친다든가, 이중 노트를 작성하여 친구에게 빌려줄 노트와 자기가 공부할 노트를 따로 관리한다는 등의 비인간적인 경쟁의 논리를 학생들에게 내면화하여 공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기에 이르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비록 기존의 '표준점수, 석차백분율'을 표기하던 방식에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의 등급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각 대학은 수능 성적의 비율을 최소 30%에서 50%까지 반영하고 있다. 어차피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특정 대학에 지원할 것이기에, 다른 수험생에 비해 한 등급이라도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합격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서울대의 2008학년도 정시 모집의 경우 1단계 전형에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겠다고 하여 마치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한 것처럼 포장하였다. 하지만 서울대 입학 정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은 지난 3월 모의수능 4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인원과 거의 일치한다.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언어	수리	외국어	사탐	비율	언어	수리	외국어	과탐	비율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0.66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0.96		
			2등급	0.13				2등급	0.21		
		2등급	1등급	0.20			2등급	1등급	0.27		
			2등급	0.08				2등급	0.10		
		2등급	1등급	1등급			0.22	2등급	1등급	1등급	0.40
				2등급			0.07			2등급	0.17
	2등급		1등급	0.17		2등급	1등급		0.17		
			2등급	0.09			2등급		0.14		

* 2006년 3월 모의수능 영역별 등급 분포

* 인문계열 전 영역 1등급 학생 : 1800여명

2007학년도 서울대 인문계열 정시모집 정원 : 720명

수능 시험은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한날한시에 동일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전국일제고사이다. 이 시험에 의해 초·중·고등학교 12년간의 학업 실력을 평가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야말로 고등학교 교육을 획일화하는 주범이다. 국가차원의 교육과정도 교과서도 수능 EBS 문제집 앞에 무기력하다. 고3 수업은 거의 대부분 수능 대비용 문제집 풀이식 수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운동진영

은 끊임없이 수능 시험의 대학입학자격고사화를 주장해 온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각 대학은 논술 본고사를 치르겠다고 하고 있다. 각 대학이 논술 본고사를 제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내신과 수능이 학생 선발의 변별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각 대학에서 마련하고 있는 2008학년도 입시안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20~50%로서 학생의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논술 본고사가 과연 학생들의 창의력과 논리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교육을 증가시키고 공교육을 왜곡하며 나아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하나하나 그 논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 2008년 입시안은 내신, 대학별 논술, 수능 세 영역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동감한다. : 84.1%
- ▷ 동감하지 않는다 : 9.7%

☞ 내신등급제는 시험부담을 높이고 친구를 경쟁자로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동감한다. : 80.6%
- ▷ 동감하지 않는다. : 13.8%

[전국 고교생 31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 출처 :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II. 논술 본고사의 문제점

1. 논술 본고사 - 창의력 평가가 아닌 변별력 확보의 도구

앞에서 인용했듯이 50년 간 글을 써 온 원로 문학평론가도, 학원가에서 명성을 날리던 논술 강사도 본고사형 논술은 창의력 측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입시를 위한 논술 교육은 오히려 논술 교육의 본질을 왜곡한다. 논술이 대학 합격 여부의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순간 창의성, 비판력, 논리력을 위한 논술 교육의 취지는 사라지고 학생들은 문제 풀이 요령을 습득하기 위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훈련에 의존하게 되고 선부른 판단을 도출하게 된다. 또한 아무리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이 담겨 있는 글을 읽더라도 그 글을 접하는 근본 동기가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성찰적 사유가 아닌 도구적 지식을 기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1884년 김옥균은 일본군을 끌어들이어 우정국 주위에 불을 지르고 반대파를 제거했으며, 왕실을 전복했다. 요즘의 쿠데타와 비슷한 성격을 띤 정변이었다.

홍선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반대하는 그는 누구한테서든지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자란 것은 누구한테서든지 배워 충족하며, 발전시킬 수 있어야 그것이 나라의 발전이 된다고 생각한 김옥균은, 일본군을 앞세워 정권을 잡았다. 김옥균은 일본이나 서양오랑캐에게 배울게 있으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개혁을 시도한 사람이었다. 개혁을 하기 위해 다른 세력을 끌어들이는 잘못도 있었지만, 그는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실천한 사람이었다.

홍선대원군을 반대의 예로 보자. 홍선대원군은 나라의 문을 꼭 닫고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 진보한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이었다. 중화주의에 빠진 중국처럼 오만해, 서양세력을 오랑캐라고 깔본 짧은 생각으로 쇄국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홍선대원군은 나라의 문을 일시적으로나마 열어놓고 그들의 참된 속셈을 엿볼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김옥균처럼 나라의 발전을 꿈도 꾸지 못하였고, 다른 세력을 배타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에서 난 홍선대원군보다 김옥균의 입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병민, 「서울대 입시안의 문제점」, 『2008학년도 입시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위 글은 어느 신문 논술코너에 한 초등학생이 쓴 글이다. 김옥균과 홍선대원군의 노선을 비교하고 어느 한 쪽 입장을 지지하라는 논제에 대해 쓴 것이다. 아직 역사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초등학생에게 이러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논술교육인지 의문이다. 위의 글에는 '서양세력을 오랑캐라고 깔본 짧은 생각', '나라의 발전을 꿈도 꾸지 못하였고' 등의 흑백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다. 진정한 의미의 사고력, 창의력 교육이란 이렇게 선부른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후설의 현상학에서 이야기하는 '판단 중지'가 필요하다. 즉 선부른 판단을 유보하고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을 탐구하고 자신의 판단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논술 본고사는 오히려 이러한 성찰적 사유를 가로막는다.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한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1년 평균 독서량이 5권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것도 대부분 전공 관련 서적이라고 한다. 분명 논술 본고사를 치르고 입학한 학생들일 텐데 과연 논술 본고사가 학생들에게 폭넓은 사고력을 길러주었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는가? 오히려 논술 교재에 나와 있는 다이제스트 판본의 글을 읽고서 '나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나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혁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같은 책 읽어 봤어.'라고 착각하게끔 만든 것 아닌가? 어쩌면 논술 본고사는 소위 명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그럴듯한 지적 장식물을 달아주고 오히려 그들이 책을 멀리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른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려는 논술 교육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교육운동진영은 그 동안 획일화된 입시 교육을 비판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본고사형 논술은 이러한 논술 교육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대학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논술을 도입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학생 선발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선점하려는 의도에서 본고사형 논술을 도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본고사형 논술이 현행 교육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학생들의 지적 성취 수준에 적합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본고사형 논술이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이유도 그렇게 해야 학생들을 쉽게 변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신과 수능만으로도 모자라 더욱 정교한 줄 세우기를 위해 논술이 시행되는 한 논술교육은 없다. 다만 입시 논술만이 있을 뿐이다. 통합 논술은 없

다. 출제자가 요구하는 의도에 따른 모범답안만이 있을 뿐이다. 현재의 가혹한 입시경쟁체제 속에서 학생들은 본고사형 논술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사교육을 통한 단순반복형 훈련과 임기응변식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논술 공부는 학생들에게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심성,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사고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 <본고사형 논술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중에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 그것은 논술 고사를 통해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입시 제도의 변화를 통해 학교 교육을 바로잡겠다는 식의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이다. 오히려 입시 제도가 학교 교육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교사의 수업도 입시 제도에 종속되어 획일화된 교육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진정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가혹한 입시 경쟁체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새로운 교육적 가치에 따라 개편되어야 하고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 개발권, 교수학습권, 평가권을 온전히 부여해야 한다. 학생들을 입시 부담에서 해방시켜 어려서부터 다양한 독서와 체험 활동, 토론과 글쓰기 등을 마음껏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논술은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의 방법론, 혹은 평가 방법론 가운데의 하나로 도입되어야 한다.

2. 논술 본고사와 사교육의 증가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운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오히려 사교육 시장은 더욱 증가하였다. 최순영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입시학원수는 2001년말 13,780개에서 2006년 6월말 27,724개로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2008학년도 입시안이 발표된 이후 논술학원의 숫자가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관련 사교육시장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교육부가 유기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논술학원으로 등록된 학원 수는 6월30일 현재 465곳으로 이 중 86.5%인 402곳이 2004년 이후 설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초등학습 전문업체 와이즈캠프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 가운데 18%가 논술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4분기에 웅진씽크빅은 1442억원, 메가스터디는 34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주식 시장에서도 교육관련주가 연일 상승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의 증가는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입시학원 증가율은 2002 서울대가 논술 부활을 요지로 하는 대입전형을 처음 발표하자 22.9%까지 큰 폭으로 올랐으나, 이후 논란의 방향이 내신으로 옮겨간 2003년에는 15.1%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3년 논술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는 서울대 입시안이 확정 발표하자 2004년에는 16.0%로 2005년에는 20.3%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대를 필두로 하는 대입 전형 방향에 따라 사교육 시장도 춤을 추고 있는 셈이다.

논술 본고사는 그 속성상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체계와 무관한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라고 강요받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설령 학교에서 일정 정도의 논술 수업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논술 사교육은 그 특성상 고액의 교육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김교홍 의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논술 사교육비가 30만원~50만원이라는 응답이 30.1%로, 50만원~100만원이라는 응답이 28.8%로 나타났다. 특히 고3 수능 직후부터 논술 고사 시행일까지 이른바 '대목' 기간에는 200만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논술 본고사의 최대 수혜자는 고액의 사교육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부유층의 자녀이며 최대 피해자는 하루하루 먹고살기에도 힘겨운 서민층의 자녀이다. 사교육을 잡겠다고 EBS 강의, 방과 후 학습 등의 전시 행정용 정책을 제시하는 교육부는 왜 입시 제도의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에는 눈을 감는가? 논술 본고사의 폐지, 그리고 학교 교육 중심의 입시 제도의 도입 없이는 결코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3. 논술 본고사와 교육불평등의 심화

[2005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아버지 직업분포]

계	관리·전문직	사무직·교직	판매·서비스직	농어업·숙련기술직	비숙련노동·무직·기타
100%	37.1%	32.4%	16.1%	9.3%	5.1%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직업 분포는

관리직과 전문직의 비율은 9.1%이고 농어업 종사자와 숙련·비숙련 노동직 종사자의 비율은 46.2%이다. 하지만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관리·전문직 부모의 자녀는 37.1%나 되고(관리·전문직 진학률 / 관리·전문직 분포율 = 407%), 노동자 농민층의 자녀는 14.4%에 불과하다.(노동자 농민층 진학률 / 노동자 농민층 분포율 = 31%) 이렇게 볼 때 관리·전문직 자녀의 서울대 진학률은 노동자 농민층 자녀의 진학률보다 13배가 높은 셈이 된다.

[2005년도 대학별 신입생 강남권 / 특목고 학교 비율 현황]

대학	모집 정원 (수시 정시 총합, 예체능 계열 제외)	서울 강남권 출신 인원		서울 특목고 출신 인원		총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대	2569	441	17.16%	256	9.96%	697	27.13%
연세대	5037	846	16.79%	633	12.56%	1479	29.36%
고려대	4088	814	19.91%	563	13.9%	1377	33.68%
총계	11694	2101	17.96%	1452	12.41%	3553	30.38%

- *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총학생수는 24,714명 (3개 대학 진학률 : 8.5%)
- * 서울지역 8개 특목고 총학생수는 2,439명 (3개 대학 진학률 : 59.5%)
- * 서울지역 8개 특목고는 모두 비강남권에 소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 중 서울 강남권과 특목고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달한다. 전체 수험생을 대략 60만 명으로 볼 때 이 중 약 4.5%(27,153명)에 불과한 강남권, 특목고 학생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학생의 30%를 차지하는 셈이다.

입시제도는 자주 바뀔수록, 복잡할수록, 어려울수록 부유층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여 어려서부터 고액의 사교육으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술 본고사도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과 무관한 입시 요소가 도입된다면 당연히 고액의 사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유층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최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서울대의 논술고사 비율 확대에 대해 47.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하지만 논술고사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들을 소득수준별로 보면 500만원 이상 30%, 400만~500

만원 26.6%, 300만~400만원 26.2%, 100만원 이하 22.7%로, 소득이 높을수록 논술고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이 발표된 직후 서울지역 외국어고 특별전형 평균 경쟁률은 작년도 6.07대 1에서 올해 8.38대 1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통계를 보더라도 논술 본고사의 확대가 대학 입시를 통한 교육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논술 본고사는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과는 전혀 무관한 고난이도의 시험이다. 어려서부터 가혹한 입시경쟁에 시달린 나머지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볼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은 고액의 논술 학원에서 문제풀이 요령을 배울 도리밖에 없다. 논술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른바 서류 전형 및 구술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유학 경험도 있어야 하고 TOEIC, TOFEL 등의 영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내야 한다.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하고 대학입시를 둘러싼 교육 불평등은 심화된다.

소위 일류 대학에 입학한 부유층의 자녀는 또다시 사회 기득권층으로 편입되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서민층의 자녀는 광범위한 청년 실업층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층을 형성하게 된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이 그대로 교육에 영향을 미쳐 학벌을 형성하고 이것이 또다시 계급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다.

온갖 가지 형태의 본고사를 통해 성적 우수자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우리나라의 대학과는 달리 그들이 그토록 선망해 마지않는 미국 명문대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최근 외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100대 교양학부대학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하는 SAT 점수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교육』, 2006년 11월호) 고액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유층의 자녀들이 SAT에서 고득점을 얻고 있기에 빈부에 따른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는 우리나라의 수시 입학에 해당하는 조기 입학 전형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기입학제도 역시 부유층의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에 이러한 모습을 과연 찾아볼 수 있는가?

논술 본고사를 폐지하고 대학 입시를 개혁하는 일, 이는 학생들의 과도한 입시 부담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 불평등을 통한 계급재생산의 고리를 끊는 일이다.

4.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현재 논술 본고사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부가 대학이 학생 선발권을 행사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했기 때문이다. 보수 언론과 대학은 한술 더 떠 아예 대학에 선발의 자율권을 완전히 넘기고 이른바 '삼불(三不—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들 중에서도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

회사에 들어올 신입 사원은 당연히 회사가 선발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학 입시와 회사 입사는 그 근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 이유는 대학 입시란 한 학생이 국가 차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공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시제도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마련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교육 목표, 교육 과정, 교수 학습, 교육 평가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이란 해당 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상을 기르기 위해 설정된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등을 말한다. 이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가 제작되고,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모든 학교의 수업이 진행된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완전히 독점하여 그 내용을 정하고 있어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와 여러모로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현장 교사와 더불어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가 구성되어, 새로운 교육적 가치에 입각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과정이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아예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선발 고사를 제시하는 것은 공교육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다.

따라서 대학입시를 비롯한 평가의 기본은 학생이 현행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하였는가 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대학이 주장하는 학생 선발의 자율권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실제 최근 치러졌던 대학별 고사, 즉 논술이나 구술면접, 적성평가 등을 보면 그 내용이 현행 교육과정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가 아니면 현행 교육과정과 완전히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고등학생에게 대학교 수학 전공 문제를 풀라고 요구하거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체계와는 전혀 무관한 영역의 문제를 풀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처럼 각 대학이 현행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체계와는 무관한 논술 고사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이유는 학생 선발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선점하려는 각 대학의 의도이다. 즉 학생들을 촘촘히 줄을 세워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을 선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지 학생들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논술을 도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학 논술 고사가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이유도 그렇게 해야 학생들을 쉽게 변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논술이 학생 선발의 변별력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면 대학은 새로운 선발 도구 즉, TOEIC이나 SAT와 같은 시험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정운찬 전 총장은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이 처음 마련된 2005년 당시 “원자재가 좋아야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다.”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야 말로 교육을 시장 경제의 논리로 바라보는 천박한 신자유주의적 사고 방식이 반영되어 있는 발언이다. 그러면서도 정운찬 총장은 “교수들의 논술 주관식 문제 채점에 객관성이 떨어진다.”, “교수들이 매기는 점수가 점심 식사 전·후에 다르다.”는 등의 말로 논술 고사의 문제점을 스스로 고백한 바 있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논술 고사를 굳이 도입하려는 대학의 이유는 ‘좋은 원자재’를 가려내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한 대학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사교육은 천문학적 액수로 치솟고, 공교육은 황폐화되고, 아이들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논술 고사로 신입생을 뽑겠다고 하기 전에 제자들의 논문을 마구 짜깁기하는 교수들부터 논술 교육을 시켜라.”, “우수한 인재를 가려내겠다고 하기 이전에 세계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대학의 경쟁력부터 제고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대학은 학교 교육의 결과를 존중하여 학생을 받아들이고 그 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육성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에 의해 공교육 전체를 황폐화시켜서는 안 된다.

전 세계에서 일본 등 극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서로 다른 입시 전형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번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 논란의 근원도 전국 N개의 대학이 N가지의 선발권을 행사하고 있는 데에 있다. 학생들은 도무지 예측가능한 입시를 치를 수 없으며 대학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애당초 보장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교육부의 2008년도 입시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교육부의 입시안은 내신과 수능을 9등급으로 하고 대학별 전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이 사용할 수 있는 전형요소를 나열한 것일 뿐, 모든 결정권은 대학에 부여되어 있다. 내신

을 무시하든, 수능을 빼 버리든, 심층 면접이나 적성검사를 하든 말든, TOEFL이나 SAT를 반영하든 대학이 모든 결정권을 갖도록 인정해 버린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전형 요소를 대학이 제시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논술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거세지면 각 대학은 논술을 슬그머니 빼버린 채 다른 무언가를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이른바 '테스팅 서비스' 시장이 개방이 되면 현행 선발 고사를 대체할 새로운 선발 고사를 외국 자본이 관리하고 실시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적어도 전국의 국공립대학부터라도 전형 요소를 단일화해야 한다. 그리고 당분간은 단일한 전형 방식을 가지고 각 국공립대학이 별도로 신입생을 선발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국공립대학의 통합 모집과 동일 학위 수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교육부 및 국공립대학이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회복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길이고, 가혹한 입시경쟁의 근원인 대학서열화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III. 외국의 대학입시제도

1. 프랑스 - '바칼로레아'와 대학 평준화

'논술'하면 흔히 떠올리는 것이 바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이다. 그래서인지 논술 학원도 '바칼로레아 ○○ 학원', 논술 교재도 '바칼로레아 △△ 교재' 하는 식의 이름이 많다. 교육청 논술 연수에서도 '바칼로레아 어찌고저찌고' 하는 식의 강연을 듣게 된다. 하지만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우리나라의 논술 고사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프랑스 바칼로레아의 전제는 대학평준화라는 사실을 애써 눈감고 있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본고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국가적 차원에서 부여하는 대학입학자격고사이다. 즉 그 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만 획득하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체계인 것이다. 11세부터 17세까지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의 중등교육 과정을 마친 학생은 중등교육과정졸업시험이자 대학입학자격고사라 할 수 있는 바칼로레아를 치른다. 바칼로레아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수능과는 달리 20점 만점에 1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으로 판정된다. 실제 이 시험에 합격하는 학생의 비율은 약 70%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문제 유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논술 본고사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논술 본고사는 2개~7개 정도의 지문을 제시하고 온갖 가지 까다로운 조건에 맞추어 학생들이 글을 쓴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지식의 양과 구조를 측정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반면 바칼로레아는 단순한 형태의 질문 하나만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되어 있다. 바칼로레아가 대학에서의 학업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지녔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아보기 위한 자격고사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논술 본고사는 학생들의 성적을 촘촘하게 계량화하여 조금이라도 더 높은 성적을 나타낸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 한국의 논술 본고사

- ☞ 포물선과 쌍곡선은 모양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곡선이다. 그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서울대 예시문항)
- ☞ 다음 네 개의 제시문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글이다. 그 주제를 말하고, 제시문 간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십시오. (고려대 2004년 수시1 논술고사 문항)

▶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 ☞ 진실보다 행복이 우선하는가? (2006년 사회계열)
- ☞ 자유롭다는 것, 그것은 어떤 장애물도 만나지 않는 것인가? (2005년 과학계열)

18세기에 처음 도입되어 200년이 넘는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바칼로레아가 프랑스 사회에 정착된 근본적인 배경은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 정책이다. 프랑스의 대학은 전체 학생의 70%를 수용하는 90여 개의 일반 종합대학을 필두로 2년제 전문대학, 그리고 고급 엘리트 양성기관인 그랑제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일반 종합대학은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 하는 식으로 완전히 평준화되어 있고,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칼로레아에 합격하면 입학이 보장된다. 이는 1968년 5월 혁명의 후속 조치로 행해진 '고등교육기본법'에 따라 대학입학에

있어서 선발과정을 없애고 문호를 완전히 개방한 결과이다. 대신 입학 후 진급 및 졸업을 위한 선별과정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반면 그랑제꼴은 고급관리, 경영자, 최고 엔지니어 등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바칼로레아 합격자 중 최우수 학생들이 2~3년간 준비반을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한 다음 시험에 통과할 만큼 입학이 어렵다. 하지만 그랑제꼴은 엄밀한 의미의 대학이라 보기 어렵다. 프랑스의 국가행정을 이끌어갈 간부를 육성하는 일종의 전문교육기관 혹은 연수기관에 가깝다. 또한 전체 고등학생의 1% 이하의 학생들이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온 국민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매진하는 기형적인 교육 형태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강력한 사회민주주의적 이념과 정책이 지배하는 프랑스 사회에는 애당초 학벌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랑제꼴의 존재로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은 없다.

따라서 프랑스의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학생들처럼 입시경쟁체제에 종속된 획일화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유롭게 독서와 토론, 글쓰기와 다양한 체험 학습 등을 자유롭게 하게 된다. 또한 '똘레랑스' 정신으로 상징되는 뿌리 깊은 토론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논술적 사유 및 글쓰기 능력을 갖게 된다. 대신 대학 진학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공부에 매몰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전공 영역에 대한 치열한 탐구를 진행하게 된다. 프랑스 사회가 사르트르, 푸코, 데리다 등 세계적인 석학을 배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다.

2. 미국 - SAT에 대한 오해와 진실

미국의 입시제도와 대학체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하는 SAT가 있고, 서울대가 있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념과는 달리 미국의 대학은 서열체제가 상당히 약한 편이고 그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SAT도 대학 합격에 절대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신 평가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따름이다. 논술에 해당하는 에세이 작성은 SAT Reading Test 영역에 들어가 있다.

미국의 대학들은 유럽의 대학들과 비교해 볼 때, 학생 선발에 있어서 경쟁이 강조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 체제는 이른바 IVY 리그를 비롯한 일부 몇몇 사립

대학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반면 대학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공립대학은 2~3개의 군(群)으로 계층화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계층 내에서는 일정조건만 충족하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평준화에 가깝다.

또한 대학입학을 결정하는 네 가지 중요한 요인은 대입준비과정 과목의 성적, SAT 점수, 전과목 성적, 학급석차 순이다. 즉 우리나라의 내신에 해당하는 것이 대학입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SAT는 고등학교 내신의 학교별 편차를 가늠하는 기준이나 대학에서의 학습지도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등 고등학교 성적의 보조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최근에는 SAT를 학생 선발에 반영하지 않거나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대학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100대 교양학부대학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SAT 점수를 대입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SAT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한 이유는 이 시험이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점, 나아가 계층별·성별·인종별·문화별로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미국의 대학 및 입시제도는 우리의 통념과는 달리 입시경쟁체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공립대학의 경우는 평준화 체제에 가깝고 SAT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대신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의 결과를 입시의 중심에 놓고 있다.

IV. 대학입시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

1. 국공립대학부터라도 전형 방식을 단일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공립대 통합 전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총 14차례 이리저리한 형태로 입시제도가 바뀌었지만 가혹한 입시경쟁체제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았다. 그 근본 이유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체제가 완강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가 우수 인재를 독점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대학서열화체제가 해체되지 않은 한 어떤 입시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학서열화체제의 해체는 곧 대학평준화를 의미한다. 프랑스의 공교육 제도의 핵심은 대학평준화를 통한 대학의 문호 개방이다.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바칼로레아에 합격하여 평준화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공립대학만큼은 평준화 체제에 가깝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한 줄로 등수가 매겨져 있는 한국의 대학 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가혹한 대학서열체제이다.

한국의 대학은 대부분 사립대학이어서 평준화 체제가 성립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교육부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을 받는 국공립대학만큼은 평준화되어야 한다. 2002년 현재 4년제 국공립대학은 총 26개로 입학정원은 68,000명이며 교육대학을 합치면 73,000여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25%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 정원을 두 배 가량 늘리고 졸업정원제를 실시하면 전체 수험생의 약 1/3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공립대학이 수용할 수 있다. 이른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¹¹⁾를 통해 통합 전형 및 동일 학위 수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와 같은 대학서열체제는 상당 부분 완화되고 대학평준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일본 등 극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서로 다른 입시 전형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번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 논란의 근원도 전국 N개의 대학이 N가지의 선발권을 행사하고 있는 데에 있다. 학생들은 도무지 예측가능한 입시를 치를 수 없으며 대학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애당초 보장될 수 없다. 특히 국립대학교로서의 사회적 책무가 막중한 서울대학교는 학교교육 중심의 대학입시라는 교육부의 방침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공교육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적어도 전국의 국공립대학부터라도 전형 요소를 단일화해야 한다. 이것은 의지만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1~2년은 단일한 전형 방식을 가지고 각 국공립대학이 별도로 신입생을 선발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국공립대학의 통합 모집과 동일 학위 수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교육부 및 국공립대학이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회복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길이고, 가혹한 입시경쟁의 근원인 대학서열화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2. 입시 제도는 학교 교육의 결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하고, 논

11) 자세한 내용은 정진상,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책세상) 참고.

술 등 대학별 본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현행 교육과정이 수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해당 사회가 지향하는 교육적 인간상과 교육철학을 담고 있는 사회적 합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학입시는 학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였는가에 따른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 현행 고등학교 교육이 갖는 수많은 문제점은 교육과정 개편, 교육여건 및 교육방법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지 대학입시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을 왜곡하는 논술 본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이른바 학생 선발의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구술 면접, 인적성검사, 서류 심사 등 온갖 형태의 대학별 본고사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3. 학생 선발은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능 성적은 최소 자격 요건화하거나 별도의 전형 방식으로 분리해야 한다.

교육부의 2008학년도 입시 정책 기본 방향은 내신을 중심으로 하는 선발을 유도하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대학은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을 최소화하고 논술, 면접, 인적성고사 등 온갖 유형의 대학별 본고사를 통해 내신 중심의 선발을 무력화하고 있다. 하지만 내신은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대학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요소이다.

지역 간,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위 학교별 내신 자료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공교육에 대한 물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역 간 학력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지역마다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여건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한 학생이 그러한 여건에서 최상의 결과를 냈다면 그것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교육 여건의 좋은 지역에서 공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공부한 학생을 전국 단위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여건에서 나타낸 교육활동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행 내신등급제는 교육학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제도이다. 만약 대학평준화, 혹은 국공립대 통합 전형이 실시된다면 내신은 절대평가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

아 교육과정상에 정해진 성취 수준에 어느 정도로 도달하였는가 하는 점만 확인하면 된다. 반면에 여전히 서열화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자료로서 내신 성적이 활용되어야 한다면 불가피하게 상대평가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내신 점수를 '수, 우, 미, 양, 가' 식의 절대 평가와 계열별 석차를 동시에 기록하여 국공립 통합 전형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사립대의 개별 전형에는 상대평가를 반영하는 방식을 과도기적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내신 성적을 가장 중요한 선발 요소로 중시한다면 수능 성적은 보조적인 자료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지원 자격 조건으로 삼는다는가, 아니면 전체 입학 정원 가운데 70% 정도를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30% 정도를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식의 이원화된 전형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내신이나 수능 둘 중 하나를 전형 요소로 삼도록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을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내신 전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불리한 특수목적고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고교졸업생 등은 수능 전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선발이 가능해질 것이며, 공교육 정상화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4. 수시 및 정시 모집을 일원화하고, 특기자 전형은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수시 입학 제도는 본래 다양한 전형 요소를 도입해 다양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학업 성적이 다소 뒤쳐지더라도 해당 분야의 탁월한 재능과 특기 지닌 학생이나 수능 성적이 다소 뒤지더라도 내신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학생들이 선발되는 긍정성을 보였다. 하지만 수시 모집은 점차 각 대학의 선발 자율권 논리에 따라 대학별 본고사의 부정적인 측면이 극대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다양한 특기와 재능을 지닌 학생이나 학교 교과 성적에서 탁월한 성취를 나타낸 학생이 선발된다기보다는 논술, 구술면접, 인적성고사 등 대학별 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학생이 조기에 선발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고교등급제 논란, 대학별 고사 결과의 공정성 및 투명성 논란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시 입학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에 커다란 파행을 맞게 되었다. 대학마다 서로 다른 전형 일정과 전형 요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일

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수시 합격생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수능 성적으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입시 제도가 정착이 되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이원화할 필요가 없게 된다. 수능 시험 이후 학생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내신 전형이나 수능 전형, 혹은 특기자 전형에 지원을 하면 된다. 그래야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일시까지 고등학교 학사 운행 및 수업의 파행을 막고, 학생들의 불필요한 혼란과 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 이외에 다양한 전형 요소를 통해 선발하는 특기자 전형은 계속 실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특기자 전형의 경우 TOEFL 등의 영어 시험이나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등의 부분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을 주로 선발하고 있다. 또한 2007학년도 서울대학교 특기자 전형의 경우 전체 입학정원 중 약 20%를 선발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TOEFL 등의 영어 시험이나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등의 부분과 관련이 있는 학생의 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그 결과 서울대의 특기자 전형은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들이나 공인영어시험이나 올림피아드를 사교육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일부 계층의 학생들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기자 전형의 비율은 적절한 선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다 다양한 선발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 해당 학문 분야에서 남다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봉사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에 꾸준히 기여를 한 학생, 예체능이나 문화 활동에 창의적인 재능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등에 대한 선발 비율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체험을 유도하고 그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도록 해야 한다.

5. 논술 교육의 취지는 교육과정 개편,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개선, 교육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살려야 한다.

(1) 학생들의 창의력을 가로막는 주범은 입시경쟁체제이다.

논술 고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논술 본고사를 통해 획일화된 입시 교육을 극복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논리력을 기르려는 논술 교육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진정한 논술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현행 입시제도, 교육과정, 교육정책이다. 교사들에게 논술교육 연수를 시킨다고 해서, 논술 고사의 비중을 강화한다고 해서 진정한 논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논리력, 비판 정신을 키우기 위한 대전제는 가혹한 입시경쟁체제의 해소이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입시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독서 및 체험활동, 토론과 글쓰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입시경쟁체제가 존재하는 한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다시 입시의 수단으로 왜곡되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당장 내년부터 교육부는 이른바 '독서 이력철'을 도입하여 이것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독서관련 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도 독서교육마저 대학입시에 의해 왜곡되어 그 진정성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학교 교육을 획일화시키는 주범은 바로 입시제도이다.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능 시험으로 인해 고등학교 교육은 오로지 수능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딸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왜곡되어 있다. 현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도, 교과서도 EBS 문제집의 위력 앞에 무기력하다. 고3 수업은 대부분 수능 문제 풀이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 예체능 교과는 아예 수업 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2) 교육과정은 새로운 교육적 가치에 따라 개편되어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은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는 교육과정 편성권으로 인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도, 교사의 창의적인 수업도 불가능하다. 학생들의 관심과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은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각계 각층의 이해와 요구가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해 집단의 이해와 요구가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을 좌우한다. 예를 들어 현행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은 아예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자본의 논리만 관철될 따름이다.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교육적 가치에 입각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교육과정의 체계는 이른바 '통합논술'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하여 수준별-선택형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현행 7차 교육과정은 각 교과 영역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학생들에게 파편화된 지식을 강요하고 있다. 국어 교과 경우 '말하기-듣기-읽기-쓰기-문학-언어'를 분절화하여 '화법', '독서', '작문', '문학', '문법'을 독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 교과 경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 사회'가 분리되어 있

고, 역사 교과 경우 '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가 분리되어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읽기'와 분리된 '쓰기'를, '정치'와 분리된 '경제'를, '세계사'와 분리된 '국사'를 배우고 있는 꼴이다. 더구나 이것이 수능 선택 영역으로 이어져 수능에서 점수 따기 유리한 과목으로 학생들의 선택이 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보편 교양 교육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처럼 분절화된 지식의 체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보편적 이념에 따라 통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그 지식의 수준도 학생들의 지적 발전 단계에 맞추어 적정화되어야 하고, 단위 학교 및 교사들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간략화 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교육을 뛰어넘어 문화교육, 생활교육, 노작교육 등 새로운 교육적 가치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교사들에게 온전한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 개발권, 교수학습권 및 평가권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다. 교사들에게 자신의 교육관에 따라 마음껏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책무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편성권 및 교재 개발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교재를 가지고 수업하는 현실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 편성에서부터 현장 교사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위 학교 및 교사에게 교육과정의 편성권이 대폭 이양되어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관에 입각하여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도입하여 획일성을 극복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사별 평가권'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의 내신평가체제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가르친 것을 시험 문제에 마음대로 반영하기도 어려운 조건이다. 오히려 시도교육청이 수행평가는 몇 퍼센트 이상, 서술형 시험을 몇 퍼센트 이상 출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교사의 평가권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별 평가권'을 부여함으로써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의 과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고,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신장시켜 수업을 개선할 수 있고, 내신 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증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논술교육은 하나의 방법론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교육과정이 개

편되고 교사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된 상태에서 독서 및 토론, 논술적 글쓰기가 다양한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과목이나 교사에 따라 독서 수업이나 토론식 수업을 전개할 수도 있고 논술문 작성 형태로 내신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논술교육은 다양한 교육 형태의 한 방법론일 따름이다. 예컨대 초등학교 글쓰기 수업에는 논술적 글쓰기보다는 오히려 상상적 글쓰기, 자기 성찰적 글쓰기가 중심에 놓여야 한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선부른 가치 판단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 축적이 경우에 따라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논술적 글쓰기는 고등학교 이후의 단계에서 중심에 놓이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학생의 관심과 수준, 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다.

(4)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학교에서는 논술 준비가 이루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결코 교사의 무능력이나 책임의 방기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여전히 학급당 인원수가 40명이 넘어가고 도서관에 사서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가 과반수이다. 독서교육도, 논술 침식 지도도 열의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교육운동이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학급당 인원수가 20명 이하로 내려가야 토론 수업도, 글쓰기 수업도 가능하다. 도서관에 읽을 책이 있어야, 사서교사가 있어야 학생들에게 책을 권할 수 있다. 교사들의 수업 시수가 줄고 과중한 업무 부담이 해소되어야 마음껏 연구하여 수업하고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혹한 입시경쟁체제를 해소하고 교육과정,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면서도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교사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수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교사와 학생이 얼굴을 맞대며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논술교육의 출발점이다.

☞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별 본고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동감한다. : 27.4%
- ▷ 동감하지 않는다. : 57.0%

☞ 현재의 수능 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 고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동감한다. : 43.7%
- ▷ 동감하지 않는다. : 29.6%

☞ 대학별 서열을 해체하고(대학평준화) 서울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동감한다. : 54.5%
- ▷ 동감하지 않는다. : 35.3%

☞ 학벌사회와 대학서열화가 존재하는 한 어떠한 입시제도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동감한다. : 74.8%
- ▷ 동감하지 않는다. : 11.7%

[전국 고교생 31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 출처 :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입시와 논술 시험, 사교육

박이선(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입시를 둘러싼 풍경

수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열기(열심히 기도)'하는 중이다. "모든 취미생활과 활동을 접고 아이를 뒷바라지 해야하지 않겠느냐", "아이는 새벽까지 공부하는데 내가 어떻게 두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느냐"며 아이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영험한 기도처를 찾아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학부모로 살아가는 일은 녹록치 않다. 입시와 직접 연관이 되어있는 학부모뿐 아니라 장차 먼 미래에 대학입시를 치르게 될 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까지 '입시'가 주는 부담감은 과히 괴물을 딱뜨리는 것과 맞먹는다고 할 수 있다. 입시와 관련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어도 이를 믿는 학부모는 없다. 또 바뀔 것이라고 믿고 있고 입시에 유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이를 보장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미 교육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인간적인 '경쟁'을 당연시하고 교육의 영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 영역임을 잊은 지 오래다. 12년간 초,중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야하고 옆의 학생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가르쳐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쟁보다 남을 딛고 나만 일어서면 되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강요하고 있다.

2008학년 대학입시제도가 발표되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새로운 말이 나타났다.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학교내신도 소홀히할 수 없고, 통합논술이라는 생소한 영역도 별도로 준비해야하고, 수학능력시험 또한 소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만능을 요구하는 대학의 입시전형안이다. 학교에서 이미 평가를 거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학생부도 실질

반영율은 5%도 되지 않는다고 하고 통합논술의 유형도 내년 3월이 되어서 제시하겠다는 대학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무서운 공룡이다.

대학이 보여주는 자세는 매우 고압적이다. 대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데 말이 많다는 것이다. 학생선발 방법이 중등학교에서 배우고 익혀 대학에서 깊이있는 학문을 공부할 자세가 되어있는 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성적으로 출세위 나눠먹기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이 없다.

입시를 둘러싸고 대학은 정부에서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녹초가 되었다. 입시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틀을 만들고 대학은 본래의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경쟁하여야할 것이다. 정부와 대학의 틈바구니에서 오늘도 학생들은 과중한 입시부담으로, 학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비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학벌사회와 입시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대해 누구나 할말이 많고 가장 많은 문제로 꼽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입시'에 관한 것이다. 입시에 대해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서열화된 대학에 진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고하게 형성된 학벌사회로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일류대학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야할 교육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입시에서 유리하다면 학교의 교육과정쯤은 비정상적으로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은 우수학생선발 경쟁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학문을 접하는 곳이다. 전문성과 다양성이 전제되어야하는 곳이다. 대학은 학생선발보다 더 중요한 건강하고 진지한 학문연구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 중등교육을 받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거친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는 곳이 대학이어야한다.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인지 학생부로도 모자라 통합논술에 심층면접까지 요구하여 고등학생들을 옥죄는 대학의 학생선발 경쟁은 거대한 폭력이다.

학벌은 학력이나 출신 학교의 계승되어온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뜻한다. 또한 같은 학교의 출신자나 같은 학과의 학자로 이루어진 파벌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학벌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에 따라 사회, 경제적으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계급적인 차별을 낳게하

고 있다.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계층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발점이 대학입시에 있고 학벌사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다.

논술 시험이 주는 압박

논술은 2008년 대학입시에서 각 대학들이 논술시험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하자마자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논술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며 이리 저리 논술 학원을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내신 성적과 수능시험을 위해 입시종합학원이나 개인과외를 하고 있고 주말시간을 이용하여 논술시험에 대비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영역을 각 4회 기준으로 200,000원에서 600,000원까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의 A논술학원의 경우 언어논술과 수리논술 1회 3시간 4회 기준에 각 210,000원, 목동의 B 논술학원도 언어논술 4회기준 200,000원, 고양시의 C 논술학원은 언어논술과 수리논술 4회 기준 250,000원에서 많게는 500,000원까지 하고 있다.

대학들이 통합논술 비중을 높혀 전형하겠다고 나서자 고등학교에서도 논술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고양시의 A 고등학교는 논술과목을 상, 중, 하 수준으로 개설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4회 기준으로 수강료는 5-6만원을 받고 있다. 또 B 고등학교는 상위 성적 학생들만으로 구성된 심화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술을 가르치고 있다. 지방의 고등학교도 이만저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논술시험이 주는 압박이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다.

학생들이 시험으로 받는 압박만큼 학부모들은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수능 시험과 학교내신을 위해 입시학원이나 개인 과외를 해야하고 논술을 위해 논술학원을 보내야하기 때문에 매월 상당한 금액을 사교육비로 지출해야한다. 고등학생의 사정이 이렇다보니 초,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미리 대비하기 위해 논술과 영어, 수학과목을 선행학습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교홍 의원이 전국의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167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논술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70.3%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논술 0사교육비 지출은 한 달에 30만~50만원 이하가 30.1%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28.7%나 됐다. 100만~200만원 이하도 1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논술학원도 2006년 6월 현재 등록된 논술학원

의 86.5%가 2004년 이후 새로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로 입시에 대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경쟁을 탓할 수만은 없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정부의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를 나무랄 수 없는 지경이다. 그만큼 정부의 대학입학정책은 일관성이 없었으며 이제 어떤 학부모도 정부의 대학입학정책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논술과 고등학교 교육

2006년 서강대학교 수시2차에 응시한 학생들이 1번 문항에서 대부분 논술답안지의 결론 도출이 같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교수들은 2000여명의 답안지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입장에서 논술하여 개인의 창의적인 생각이 부족하다고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한다. 아래의 논술 문제를 보자니 고등학생들이 읽었을 만한 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학교생활과 야간 자율학습과 학원으로 전전하는 아이들의 생활을 고려해본다면 호지가 쓴 '오래된 미래'와 올리히 벡의 '지구화의 길'을 읽었을 학생은 별만 없어 보인다.

서강대 2006년 수시 2학기 논술문제

1. '제시문 (가)는 근대화 과정에서 라다크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이 변화와 관련하여 제시문 (나)의 관점을 평가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라다크의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500-600자)

(가) - 헬레나 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 중에서

(나) - 올리히 벡의 '지구화의 길'중에서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논술'이 없다. 대학에서 논술시험을 보겠다고 하니 울며겨자먹기로 논술을 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아이들에게 가혹한 상황이 자주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겠다는 것과 가르친 자가 평가하지 않고 대학 교수가 내는 문제를 풀어야하는 것이 그렇다.

얼마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을 면담한 자리가 있었다. 본부장은 '7차 교육과정이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어 대학에서 통합논술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강변하였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한번이라도 본 일이 있는지 의심스러웠고

고등학생들의 생활을 한번이라도 관심 갖고 들여다 보았는지 기막힌 심정이 되었다. 대학경쟁이 치열하니 논술시험을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논술정도는 해야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기에 사고력과 통합논술하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하는 곳이 대학이어야 한다고 했다. 인사하고 나오는 자리에서 학교공부 열심히 하면 우리 대학 들어올 수 있다는데 아마도 본부장의 자녀들은 우리나라에서 학교생활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싶었다.

대학에서 행하는 논술은 학생들을 변별해내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학생부와 수능시험만으로도 변별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학들은 변별력문제만을 들고 나오고 있다. 대학이 학생선발경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대학의 세계 경쟁력은 100위안에 드는 대학이 하나도 없는 지경이 되었다. 대학에서 학문의 깊이를 배우면서 통합논술하는 능력도 아울러 배워야 하는 것이다.

논술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논하고 기술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하며 이는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연후에 논술시험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정에 논술이 포함된다면 대학은 입시전형에서 학생부에 담겨진 논술과 관련한 결과물을 참고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진학을 위해서 비인간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벌을 얻기 위해서다. 학벌을 얻어야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과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입시제도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를 어떤 형태로 바꾸어도 입시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많다. 학벌이 우리 사회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박대하고, 대학이 학생선발에만 몰두하면서 초중등교육을 왜곡시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테스트하는 한 입시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초중등교육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입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대학에 들어가서 논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사고력을 심화시키는 진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죽음의 삼중고를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일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논술아 가면을 벗어라!

강나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논술. 그것은 갑갑함입니다. 공교육을 일부 무용지물로 만드는 마술(통합교과형!)이며 창의성의 기만이며 수능, 내신과 함께 대입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기에 이전에, 그것은 갑갑함입니다.

단순한 오지선다형 시험과는, 같으면서도 또 다릅니다. 오지선다형 시험에서는 제시된 답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잊고 그저 교과서와 참고서를 적용하여 하나를 고르는 '수험생'이 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논술은 나에게 내 손으로 직접 나를 버리는 '수험생'이 될 것을 주문합니다. 논술은 나의 사상과 나의 글을 규정합니다. 한층 심각한 기만을 요구합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면 이리이러한 글을 써라." 저는 간접적으로는 사상의 자유까지 침해당한다고 느낍니다. 면접도 별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저와 같은 대학 면접을 본 친구는, 평소에는 인구는 줄어야 한다고 말해왔으면서도 교수 앞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노동력이 줄어들어서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그 친구의 부족함으로 돌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난한 정답'과 '무모한 도전' 사이에서 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택할까요.

이제 과거에는 수능이나 내신 공부에 대하여 저항적인 의미까지 담고 일부 용감한 청소년들에 의해 행해졌던 인문사회과학 서적 읽기와 비판적 글쓰기조차 논술 도입과 함께 입시체제 안으로 흡수되어버렸습니다. 사상과 이론과 비판적 의식을 논술시험을 치기 위한 수단으로써 모방한다는 것은, 사상과 이론과 비판조차 싸구려로 전락시킵니다. 논술을 위해서 선별된 100권의 고전 도서를 읽는 우리의 모습, 혹은 그 100권의 고전 도서에 대해 축약된 메뉴얼을 읽는 우리의 모습 속에 '진정성' 같은 건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논술과 면접을 대비하며 사회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더라도, 그 입장을 자신의 삶으로 체계화시키지 못하고 하나의 답안으로서만 만들어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를 가지고 논술을 쓰는 우리는 가식적

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내용에 깊이가 있는 인문사회학 제시문을 처음 접하고 도 그것을 오래전부터 고민해 온 양 쓰게 됩니다. 그 제시문의 주제들이 어떤 것 들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수업시간에 교과서 를 배울 때는 그것이 수능을 위한 공부로 전략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 고 그 주제에 대해 고민할 수 없습니다.

논술을 쓰는 우리는 우울하고 갑갑합니다.

창의력, 사고력이 대체 뭐니?

“그래도 논술이 수능보단 사고력, 창의력을 더 요구하지 않니?” 이런 반론은 전체 논술 답안지의 반 이상이 비슷비슷하다는 언론 보도 한 줄에 격과당합니다. 창의력이나 사고력 같은 것은 다른 교육체제를 그대로 둔 채로 논술만 도입한다 고 증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정답’을 찾아야 하는 논술, ‘오답’을 쓸까 두 려운 논술은 절대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술이라고 다 같은 논술이 아닙니다. 논술에도 차등이 발생합니다. 수 능이 끝나면 성적과 지망하는 대학에 따라 공부하는 논술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학원에도 반이 따로 편성이 됩니다. 서울대나 연세대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은 “인 간은 무엇인가?” “경쟁은 어떻게 하면 정당한가?” “불안의 의미는?” 등등 상당히 학문적이고 머리에 쥐나게 할 정도로 골치 아픈 것들입니다. 반면 대학서열체제 에서 비교적 하부를 이루는 대학들은 대개 사고력과는 거리가 먼, 상당히 틀에 박힌 문제들을 냅니다. 흔히 사회계약설,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시장실패 와 정부실패, 북핵, 안락사, 고령화 사회 등, 뻔하고 뭔가 새로운 입장이 나오기 좀 어려운 주제 아니면 시사적인 주제가 제시됩니다. 의도했는지 어쨌는지는 몰 라도 결과적으로 지식 위주의 논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시문 분석, 요약을 묻는 것이 논술문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요약하는 게 12345 찍기보단 낫다고 해도 역시 ‘정답’과 틀이 정해진 제한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습 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원에서, 학교에서 배울 때 “요약하시오.” 문제 같은 경우 ‘핵심어’ 몇 가지만 꼭 넣어주면 된다는 식으로 배웁니다.

이 이야기야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더 잘 말해주실 것 같지만 말이 나와서 잠깐 짚고 넘어 가자면, 수능이 끝나면 학교를 빠지면서(학교가 입시기관이란 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정당한 결석!) 학원으로 향하는 몇몇 학생들의 모습을 봅 시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수능이 끝나자마자 대거 학원으로 향합니다. 대입논술의 괴리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킵니다. 학원에서

는 학생들에게 시험에 나올만한 주제들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키 려하기 보다는 많은 양의 주제를 얼마나 많이 습득하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했으니까 내일은 이 주제를 하자. 아예 책으로 나오죠. 논제+원고 지, 논제+원고지... 또다시 획일적 교육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15만원 은 썩 편에 속하는 논술학원을 등록하면서,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부모님께 죄스런 마음은 점점 늘어갑니다.

이런 논술 속에서 “창의력과 사고력”이란 뭘까요? 논술을 실제로 겪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갑갑함과 냉소만 더 늘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전히 답은 한가지인 논술!

논술은 대입을 위해 쓰이는 순간 죽은 글이 됩니다. 논술은 가벼운 마음으로, 대학 그거 좀 떨어지면 어떠냐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답이 무엇일지 고민하지 않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답이 없다는 믿음 속에 다양한 ‘오답’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사회가 수험생들 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느냐고 물어보면 모두들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것입니다. 현재의 중등교육체제는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다는 건 굳이 입 아프 게 떠들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결국 대학입시라는 목표 아래 이루 어지는 행위들은 무엇이건 간에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학생들의 사고를 획일적으로 만든 대학민국 교육 아래서 창의성 증진을 요구하 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학생들에게 중압감을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논술이 오히 려 더 학생들을 획일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조차 간접 적으로 짓밟는 일이며, 우리들을 더욱 냉소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21세기 지식경제 시대와 공교육체제의 급진적 개혁 방안

심광현(문화연대 정책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1. 21세기의 시대적 변화 흐름과 교육 개혁의 방향

1) “21세기는 정보경제, 지식경제”라는 화두의 사회경제적 의미 :

- * 전자적 자동화체제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융합을 통해 유비쿼터스-디지털-컨버전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의 표준적인 시간장소 규정성이 해체되고 있고,
- * 개별노동의 노동시간 기준의 가치 측정 방식이 와해되고 팀 단위 창의적 과제 해결방식에 따른 가치 측정방식이 도입됨을 의미. 이는 지식경제의 부 창출의 근거가 양적인 정보를 창의적 지식으로 가공하고 창안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의미
- * 이에 따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경제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각하고 있음.
- * 내년부터는 공무원의 근무방식도 표준화된 방식에서 자율시간근무제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임.
- *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전자적 자동기계화-융합적 커뮤니케이션 체제가 확산될 경우 전체 노동시간의 축소도 가속화될 상황임.(맑스가 말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이 생산을 주도하는 “일반지성”의 시대(생산의 사회화와 협업의 사회화)의 도래)

2) 지식경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정책 대응의 문제점

- * 이런 흐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현재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자동화에 따른 전체 노동시간 감축을 고부가가치/고임금/고속련/정규직 노동 vs 저부가가치/저임금/탈속련/비정규직 노동으로 양극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외주관리 방식으로 문제를 봉합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이에 따라 고등교육체제도 고부가가치 노동력 육성을 위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속화되고 있음(국립대 법인화, 대학별 자율입시 부활 등)
- * 그러나 노동의 양극화는 소득/분배의 양극화를 심화, 중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의 해체와 사회적 갈등과 불만의 폭발을 야기할 단기적 성장주의적 처방에 불과함.

3) 지식경제 시대의 정책 대안

- * 지식경제 시대의 본격화는 산업 전반에서 자동화 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림으로써 다수의 인구가 현행 노동과정에서 워크아웃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나, 단지 현행의 임금노동체제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들을 워크아웃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경제 전체 수준에서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수의 급감을 초래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임(현재 한국사회가 이혼률과 자살률 1위를 기록하면서 저출산/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난 10여년 동안 단기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무분별한 확산에서 기인, 이미 한국사회가 노동양극화-->고부가가치 노동인력의 축소-->노동양극화의 재생산 심화-->고부가가치 노동인력의 급감의 악순환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임)
- * 중장기적 대안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제시되어 있음 : 노동과정 자체가 개별노동 기준에서 집합적인 창의력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노동으로 이행하고 있으므로 임금체제 역시 개별노동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보장소득 형태의 사회적 임금으로 전환해야 함.**
 - (1) 임금지급 수준 : 최저생계비와 평균근로임금 사이의 중간 가격 정도의 사회적 보장소득을 경제활동가능인구에게 지급하고 + 나머지는 자유경쟁에 따른 임금체제를 병행
 - (2) 사회적 책무 : 현재 부분노동으로 처리되고 있는 가사노동, 육아노동 등에 대한 사회적 임금 지불의 형식을 취할 수 있고, 현재 저임금/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공공서비스 부문에 참여토록하며, 환경보호와 문화적 공공서비스 부문

등을 새롭게 창출하여 최소한의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방식.

* 또한 시간의 자율적/창의적 이용의 필연성에 입각하여 “생애주기 시간자율설 계정책”(앙드레 고르)을 도입해야 함. 이를 통해 과제의 창의적 해결 능력을 키우 기 위해 필요한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을 활용토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평생학습교육기관의 공적 운영을 확대해야 함.

4) 지식경제 시대의 지식의 역설적 특성

* <부의 미래>에서 토플러는 새로운 경제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식의 10 가지 특성은 기존의 경제학적 틀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

- (1) 지식은 비경쟁적이어서 수백만 명이 사용하더라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다.
- (2) 지식은 형태가 없지만 조종할 수는 있다.
- (3) 지식은 직선적이지 않다.
- (4) 지식은 관계적이다.
- (5) 지식은 다른 지식과 어우러진다.
- (6) 지식은 어떤 상품보다도 이동이 편리하다.
- (7) 지식은 상징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압축할 수 있다.
- (8) 지식은 점점 더 작은 공간에 저장할 수 있다.
- (9) 지식은 명시적일 수도 암시적일 수도 있다.
- (10) 지식은 밀봉하기 어렵고 퍼져나간다.

* 지식이라는 자산에는 역설적인 특징이 있음. 지식은 내용을 아는 순간 완전한 비밀이 될 수 없으며 적어도 가치의 일부가 손상. 하지만 지식은 그 희소성을 손상시키지 않고는 정보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경제에서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면 기존의 물질적 상품의 생산과 교환에 적용하던 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움.

* 정보재의 가치는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불확정성의 발견이 고전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시키듯 정보지식재의 불확정성은 지식정보의 차별적인 정치경제학을 요구하고 있음.

* 또 석유와 지식의 차이는 석유는 쓸수록 줄어들지만 지식은 쓸수록 더 많이 창조된다는 것임. 따라서 전처럼 ‘경제학은 희소성을 배분하는 과학이다’는 정의는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음.

5) 새로운 교육과 연구 체제의 필요성

* 기술혁신적 자본주의의 전도사인 토플러조차 인정하듯이 새로운 지식경제는 무한하면서 비경쟁적이고 밀봉할 수 없어 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 공공재로서의 지식의 집합적 창출이 불가결한 시대임.(맑스의 “일반지성”, “사회적 지성”)

* 따라서 무한하게 자기증식적인 지식의 개방적이고 공공적인 성격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제도가 불가피한 상황임. 지적 재산권 제도의 강화란 사실상 지식의 자기증식적인 개방적 성격과 본질적으로 모순되는 것으로 창조적 지식발전에 장애. 불확정성 원리에서 참여자에 따라 가변적인 지식의 개방성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경제학 대신에 사적 소유의 폐쇄성과 확정성에 입각한 낡은 정치경제학으로 족쇄를 채우는 것과 동일한 상황.

* 현재 한국의 대학입시제도 역시 표준적/획일적 기준에 의한 서열화의 낡은 지식축정의 원리에 입각하여 창의적 지식생산의 새로운 에너지에 족쇄를 씌우고 있는 형국임.

* 지식경제의 동력이 될 개방적 활력과 집합적인 방식의 창의성 육성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새로운 교육과 연구의 원리가 제시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대학교육과 중등교육의 급진적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2. 공교육 제도의 급진적 개혁을 위한 가이드라인

1) 교육목표 재조정의 취지

* 자동기계화의 증대/개별임금노동의 감소와 그 대신 프로슈머적인 비화폐적 서비스와 유비쿼터스 커뮤니케이션의 증대에 따른 다중적 창조적 소통의 증가 경향 속에서 국민경제의 해체와 노동의 양극화라는 부정적 악순환 정책 대신 국민 다수의 삶의 질 증대와 사회적 노동의 창조성/공공성 함양과 사회적 보장소득으로의 전환이라는 긍정적 선순환 정책을 전개해가는 데 적합한 새로운 교육목표 수립

2) 새로운 교육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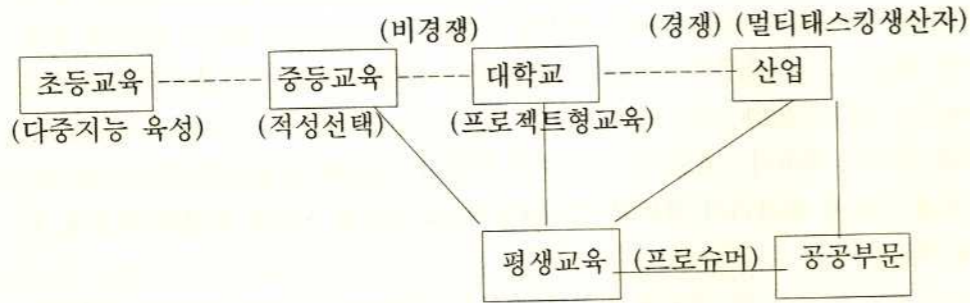
* 수동적 정보의 암기가 아니라 능동적 지식의 창조를 위한 교육

* 창조적 지식의 성격 : 다양한 경험과 체계적 사유의 인터페이스(디자인적 사고)를 주로 하면서 언어적(환유적, 귀납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시스템적, 연역적)를 보조로 하는 새로운 다중지능 교육(다중지능간의 인터페이스 활성화)

3) 공교육의 새로운 미션

- * 고등교육 : 첨단/선진 분야의 고부가가치 지식 창조자 육성
- * 초중등교육 : 지식창조성의 다중적 주체인 능동적 프로슈머(별첨 참조)의 육성

4)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과 사회의 선순환 구조 창출



- *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
- * 대학 입학 과정은 비경쟁 체제; 입시철폐
- * 대학교육은 철저하게 프로젝트형(과제중심적) 교육 :
 - 각 학년별로 복수/자율 전공 트랙킹 형태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 모든 수업은 과제중심적인 프로젝트형 강의(산학협동 및 공공프로젝트 등)에 참여하여 개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는 방식
 - 교수진을 현재의 2배 이상 채용(6만명에서 12만명으로)하고 튜터제도 도입
 - 3학년부터 경쟁체제 도입하여 탈락하는 학생은 평생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재도전의 기회 제공
- * 대학졸업 및 대학원 진학 과정은 경쟁체제 :
 - 대학 졸업시 자격시험(30%)과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심사(70%)
 - 탈락하는 학생은 평생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재도전의 기회 제공
- * 대학(원) 졸업 후 사회 진출 시 두 유형으로 진출
 - 산업 부문에서 일할 멀티태스킹 유형의 생산자(고임금/고책무)
 - 비산업 공공부문에서 일할 사회적 노동자 유형(사회적 보장소득 + @ / 적성)
 - 두 부문 간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노동의 설계(라이프타임 설계)

5) 정책적 필요조건

(1) 교육재정

- * 현재 교육예산을 2010까지 3배 증액하여 OECD 평균수준 유지, 20대 후반~40대의 비정규직 교사/강사를 대폭 정규직으로 전환
- * 교육시설의 대폭 증설과 e-learning 체제의 확산
- * 기숙사 시설의 대폭 증대와 장학금 확대

(2) 대학입시제도 철폐

- * 대학입시 철폐 및 일반대학의 상향평준화 (국공립대학에서 사립대로 확산)
- * 입시 철폐하고 고교졸업자격시험 합격자(검정고시 수준의 지식교과시험 + 다중지능테스트)는 소정의 절차만을 거쳐 누구나 입학하도록 개방(평생교육 차원에서 전 국민이 접속 가능하게 함)

(3) 대학교육과정 운영체제의 대폭 전환

- * 입학은 쉬우나 졸업은 엄격함
- * 첫째에 무시험 입학제도로 인해 서울대학이나 국공립대학으로 막대한 학생이 몰려 사립대학 지원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국가가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되, 1-2년이 경과하면, 국공립대 학생의 다수가 엄격한 평가로 인해 탈락하게 되면서 무작위로 서울대나 국공립대에 대거 지원하는 사태는 해소될 수 있음, 오히려 국공립대의 질이 상향평준화될 경우, 사립대학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자율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게 됨.
- * 물론 일부 명문사립대학의 경우 고교자격시험 이외에 자기 대학에 맞는 특수한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명문대학을 유지하고자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명문사립대학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지할 수 있음

(4) 사회 진출

- * 다수의 졸업자는 자신의 적성에 따라 비산업부문의 사회적 노동자(프로슈머)가 되면서 사회적 보장소득이 주어지고 라이프타임 노동시간 설계가 가능하므로 무리해서 산업부문의 치열한 경쟁체제로 진입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 산업부문의 첨단기술/경영 부문에 종사할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진출(그러나 현재보다는 경쟁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